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5월 21일(주일) 제1148호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선물 '예수 그리스도'



사진은 지난해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

내일(22일),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
오후 7시 서빙고 본당, 부모와 자녀 327명 참석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가 내일(22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행복드림 콘서트는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65세 이상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특별한 전도집회다. 이번 행복드림 콘서트에는 부모와 자녀 32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부모와 자녀가 동석한다.

이번 행복드림 콘서트 참석자들의 면면이 벌써부터 눈길을 끈다. 전체 참석자 중에서 시부모님을 초청한 며느리가 20%를 차지하고, 90세 이상 부모를 초청한 성도도 여럿 있다. 행복드림 콘서트에 참석하기로 약속한 아버지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한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유경아 성도(용산공동체)는 "부모님이 첫째 딸을 잃고 늘 불공을 드리고 계신데 이번 맞춤전도집회를 계

기로 천국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고 소망했다.

여성민 목사(전도본부장)는 "사실 부모님 전도가 가장 어렵다"면서 "교회와 자녀들이 힘을 모아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행복드림 콘서트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개그맨 이흥렬, 가수 노사연·이무송 부부, 국악찬양팀 가야랑, 배우 오미희, 실버합창단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후속프로그램으로는 영화관 데이트가 실시 될 예정이다. 이번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대상자들을 위한 세례교육과 세례식도 거행된다.

문의: 02-3215-3214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이번주 카운트다운

청년들을 위한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이 막 오른다. 5월 26~27일 양재 온누리교회, 28일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존파이퍼 목사, 김춘근 교수, 이용규 선교사,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 이상준 목사가 강의한다.

마리아행전 'SENT' 보냄 받은 자

올해 마리아행전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SENT(보냄 받은 자)'를 주제로 막 오른다.

2017 마리아행전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김윤희 교수(FWA아시아 대표), 김하중 장로 등이 메시지를 전한다.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저녁집회도 진행된다.

존 파이퍼 목사 초청 컨퍼런스 'Desiring God'

5월 29~30일 양재 사랑홀서 개최

존 파이퍼 목사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 '디자이너링 갓' (Desiring God)이 5월 29~30일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개최된다. 존 파이퍼 목사는 세계적 영적 지도자이자 미복음주의 신학자이다.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와 김춘근 교수(JAMA 설립자)도 강의한다.

디자이너링 갓 컨퍼런스는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와 평신도들을 위한 '저녁부흥집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목회자 컨퍼런스는 29~30일 양재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교회 갱신을 원하는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평신도들을 위한 저녁부흥집회는

30일(화)과 31일(수) 오후 7시 30분 양재 사랑홀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진행된다. 존 파이퍼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31일 부산 수영로교회 집회 실황은 양재 사랑홀에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존 파이퍼 목사는 미국 최고의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위튼대와 풀러신학교,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공부했다. 베들레헴침례교회(미네소타 주 소재)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현재 '디자이너링 갓' 대표로 활동 중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등 40여권의 저서가 있다.

존 파이퍼 목사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최고 복음주의 신학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이다.



문의: 02-570-7322, 732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동작공동체 순맞춤전도집회

“서서평 선교사가 꼭 울 엄니 같아서...”

효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영화 홍보도 하고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극장에 모인 어르신들.

동작공동체가 아주 특별한 순맞춤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동작공동체 사랑, 소망다락방이 서울극장에서 장성교회 경로대학 어르신 80명을 모시고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관람했다. 이날 순맞춤전도집회는 효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영화 홍보도 하는 일석삼조였다. 무엇보다 영화를 관람한 어르신들의 반응이 남달랐다. 서서평 선교사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에게 이 영화는 감동 그 이상이였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자매인 정금옥(82세), 정봉금(79세) 할머니는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보면서 가슴에 묻어 뒀던 어머니를 떠올렸다. 서서평 선교사와 어머니가 너무 닮아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서서평 선교사가 마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꼭 울 엄니 같아서... 우리 엄니가 625 때도 성경책을 들고 산골짜기를 다니면서 전도하셨거든.”

당시 정금옥, 정봉금 할머니의 어머니는 서울 피어선기념성경학교(현 평택대)를 다녔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고향 단양으로 돌아왔다. 삼엄하던 그 시절도 어머니의 전도열정을 꺾지 못했다. 그 일로 공산군의 표적이 됐지만 말이다.

“아직도 생생해. 내가 물가에 서 있는데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은 엄니가 나에게 왔어. 그때 공산군들이 울 엄니를 따라오더니

“손들어!”라고 외치면서 총구를 겨누더라고. 어찌나 겁이 나던지 벌벌 떨고 있는데 엄니가 내게 성경책을 건네더라고”

정봉금 할머니는 어머니가 건넨 성경책을 받지 못했다. 겁에 질린 나머지 집으로 도망을 갔다. 그때 집에 있던 정금옥 할머니가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

“밖에 나가서 엄니를 찾는데 어디에도 없는 거여. 근처에 외삼촌집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에도 없고... 초조한 마음으로 외삼촌 집에서 나왔는데 그때 엄니가 공산군들하고 걸어오시더라고. 내가 엄니를 얼마나 애타게 불렀는지 몰라. 엄니가 내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 내가 이 사람들처럼 금방 갔다 올게”하고 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가 정금옥 할머니가 15세, 정봉금 할머니가 12세였다.

“서서평이 12살 때 엄마 찾으러 미국에 가서 문전박대 당했다고 했는데 나는 12살 때 엄니가 돌아가셨어. 그게 생각나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서서평 선교사도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해서 한국 사람들을 돌본 것이 얼마나 귀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길 거여.”

감동 그 이상의 감동

어떤 어르신은 난생처음 하는 영화 관람이었다. 얼굴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 영화 관람뿐만 아니라 예배도 드렸다. 함께 울동하며 찬양하고, 말씀까지 들었으니 이보다 좋을 순 없었다.

동작공동체와 장성교회는 올해 2월부터 인연을 맺었다. 동작공동체가 장성교회 리더십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면서 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성렬 장로가 경로대학에 다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관람하면서 효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영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 순맞춤전도집회로 이어졌다.

장성교회 경로대학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

시 30분부터 예배드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레크리에이션, 합창 등)을 하고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경로대학에 다니는 어르신 100명 중 절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드디어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밝게 빛났다. 일제히 서서평 선교사의 감동적인 삶에 빠져들었다. 영화가 주는 감동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았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영화를 보면서 자신이 살았던 그때가 생각나서, 한없는 사랑을 주셨던 엄마가 떠올라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 당시 시대상도 엿볼 수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오자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서평 선교사가 투병 중에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과 서서평 선교사의 제자 강형식 전도사가 간증하는 장면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렸다.

“어느 것 하나 쉽게 버리지 않고, 음식을 남기는 법이 없었다.”

강형식 전도사의 삶에 어르신들이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좁고 배고팠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진짜 공감이었다.

유영순(72) 할머니는 난생처음 본 영화가 바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다. 영화는 어르신들을 울리고 또 울렸다.

“영화 보면서 나의 믿음이 어찌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서서평 선교사가 투병 중에도 시종일관 우리를 섬겼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난생처음 본 영화인데 아주 값진 영화를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박미인(93세) 할머니도 서서평 선교사의 삶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다.

“그때 우리나라가 참말로 힘들게 살았어. 말도 못혀요. 그런데 젊은 외국 처녀가 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는지 신기하.”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준 감동은 복음전파로 이어졌다. 박미인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했다.

“난 하나님 잘 몰라. 근디 서서평 그 처자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애.”

동작공동체에 온 편지

올해 초 온누리교회 서성렬 장로님께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귀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서 장로님과 좋은 교제를 하는 것도 감사한데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장성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로대학 어르신들께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보여드리면서 전도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야외활동에 제한이 있는데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은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께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몇 십 년 만에 혹은 난생처음 극장에 가시는 어르신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영화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같은 나라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쉽

저희도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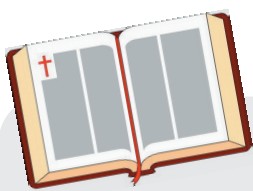
지 않은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 한평생 헌신한 서서평 선교사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고도 하셨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동작공동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귀한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

다. 저희도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온누리교회 동작공동체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순중 담임목사 (장성교회)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사무엘하 9장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왕조가 바뀌게 되면 옛 왕조의 후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이 평안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 내용이 사무엘하 9장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자녀를 찾았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권력을 잡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반역의 씨가 될 수 있는 사울의 후손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죽이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들을 찾았습니다.

일방적인 은혜

여러분,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마침 사울 집안에서 일하던 시바라는 종이 있어서 그를 불러 다윗 앞에 서게 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시바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왕의 종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1-4절).

다윗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집안에서 일했던 시바라는 종이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울의 후손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이기에 왕과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가 얼마나 심한 불구인지,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 묻지 않고 단지 그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종은 사울의 후손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로드발이라는 말은 ‘로’는 ‘아니라’는 뜻이고 ‘드발’은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후손이 별 볼일 없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황무지 같은 버려진

땅에 투신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후손의 이름이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은 ‘지독한 치욕’, ‘부끄러움을 뿌렸다’, ‘부끄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가 다섯 살 때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므비보셋을 피신시키다가 떨어뜨려서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절름발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므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진 것은 므비보셋이 다섯 살 때였는데 그때 유모가 그를 안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그 아이를 떨어뜨려 그 아이가 절게 됐습니다.”(삼하 4:4).

므비보셋은 이름처럼 불행한 삶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므비보셋이 장애를 입은 것도,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 왕이 전쟁 중에 죽게 된 것도,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앞에 놓인 것도 그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고통과 치욕, 불행과 두려움은 오로지 므비보셋의 몫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얻는 것이 사랑입니다. 되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조건, 자격 때문에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은혜가 거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므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네게 은총을 베풀고 네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네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5-7절).

다윗 왕의 부름을 받은 므비보셋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 므비보셋에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네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한 모든 땅을 네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도 우리도 므비보셋과 같을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있는 모습처럼 므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므비보셋에게 다윗 왕의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음성은 구원의 음성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에서 구원을 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물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은 수치스런 병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서 병을 고쳐달라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두려워했습니다. 몰래 옷자락 만진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무서워 떨며 예수님 앞에 앞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므비보셋과 다윗도 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대로 그를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 버리시는 날에도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 주게”(삼상 20:14-15).

여러분,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순전한 사랑 때문에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도 그의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불한 대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므비보셋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을만한 자격이 없었고 되갚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왕을 피해서 도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그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므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러자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네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니 너와 네 아들들과 종들은 므비보셋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두어 네 주인의 손자에게 양식을 대도록 하여라. 네 주인의 손자 므비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때 시바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8-10절).

므비보셋은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죽은 개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므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므비보셋과 같습니다. 참으로 냄새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고귀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상처와 아픔을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자녀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요 1:12).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삶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베풀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너무 맛있는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인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획

5월은 가정의 달 _ 2. 성경과 부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부가 바로서야 이 시대 가정, 사회, 교회, 나라가 산다
크리스천들이 성경적 부부로 거듭나 거룩한 본(本) 보여야

오늘(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둘(2)이 하나(1) 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21일로 지정했다.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임을 되새기는 날이다.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이 핑크빛 행복을 소망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부들이 외치는 아우성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크리스천 부부라면 세상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성경적인 부부상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 해답이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성경에 수많은 부부들이 등장한다. 도리를 다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부부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고난을 극복한 이상적인 부부도 있다.

협력하여 범죄를 저지른 최초의 부부는 아담과 하와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며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셨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왜곡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넸다. 아담을 도운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로 인도했다. 아담의 책임도 크다.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다. 아담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하와에게도 잘 알려 지키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선악과를 건네는 하와를 바로잡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협력해서 범죄한 부부다(행 5:1~3).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판 값을 전부 사도에게 바치지 않고 일부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성령님을 속이는 일이었고 결국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범죄자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어디 이뿐인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창 12:10~20).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했던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졸렬한 모습을 보였다(창 26:6~11). 속이는 것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였다. 리브가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 남편을 속여 차남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했다. 이 일로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서로를 속이는 부부는 가정불화와 갈등, 가정 붕괴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상적인 성경적 부부의 모델 요셉과 마리아, 브리스가와 아굴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이상적인 성경적 부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아내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다.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떠벌리지 않았다. 당시 법으로는 대제사장에게 간음죄로 고발하고 돌로 치게 해야 했지만 알리지 않았다. 약혼녀 마리아에게 돌을 던지기보다 자기가 돌을 맞는 쪽을 택했다. 요셉의 마리아에 대한 사려깊은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름다운 부부였기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된 것일지도 모른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신실하고 아름다운 부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이다. 이들 부부는 신약성경에 여섯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 만큼(로마서, 디모데후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세 번)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부부의 표본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언제나 함께 함으로써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 부부는 자주 이사를 다녔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서 고린도로(행 18:2), 다시 로마로 갔다가(롬 16:3), 터키 에베소로 이주해(딤후 4:19)서 에베소교회를 설립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들 부부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브리스

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며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들 부부는 항상 함께했음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떨어진 적이 있고, 욥의 부부도 갈등으로 떨어져 산 적이 있었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언제나 함께 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다.

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주의 종(바울)과 함께 일했다. 그들은 바울을 도와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생명을 걸고 바울을 도왔다(행 18장, 19장).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비롯해 빌레몬, 디도, 마가, 아리스타고, 누가, 우르바노, 글레멘트, 아볼로 등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다. 그들 부부는 사도 바울의 복음사역에 있어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역자였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롬 16:4)며 감격적인 기록을 남겼을까.

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부부였다.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행 18:24~26).

아볼로는 바울과 같은 뛰어난 영적 지도자였다.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할 정도로 지식적으로 뛰어났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모를 정도로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 그런 아볼로를 평신도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가 가르쳤다. 이는 곧 이들 부부가 이미 양육되었고, 남(엘리트 목회자)을 가르칠 정도로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은 물론이요, 아시아 모든 믿는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감사와 칭송을 받을 정도로 믿음의 가정을 이뤄 낸 주인공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부부로 거듭나기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기

이 시대 가정이 위기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가정의 기본은 부부다. 부부 사이에 문제 생기면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와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부와 가정의 원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엡 5:25).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벧전 3:1).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아끼고 존중했던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난을 함께 견디며 교회와 주의 종의 신실한 동역자로 헌신했던 것처럼 이 시대 크리스천 부부들도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사랑해야 한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가정을 일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다.

세상의 모든 남편들에게

“돕는 배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김성묵 장로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아버지학교에서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쓴 편지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언젠가 어머니학교를 마치고 온 당신이 들뜬 목소리로 내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자신과 결혼할 거냐고 당신은 몇 번이나 망설이고 망설이다 물었을 텐데

그때 나는 참 무성의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질문이야?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게 어딴어? 인생은 한 번뿐이야. 헛된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 돼.”
이제와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나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당신은 내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저녁으로는 무엇을 먹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말하면 당신이 알아? 이미 먹어 버린 밥 알아서 뭐하게?”라며 당신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내 말에 당신은 체념하듯 중얼거렸죠 “그러네요 제가 그런 걸 알아서 뭐 하겠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당신의 슬픈 목소리가 생각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이 후회되고 부끄럽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무시하는 말로 당신에게 상처만 줬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싸운 뒤에는 사과할 줄도 모르고... 항상 당신이 먼저 사과했지요 밖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정작 집에서는 한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한 남편이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나는 이 편지를 읽으며 불현듯 아내가 나

에게 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과 내가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거야?”라고 묻는 아내에게 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아내의 표현을 빌리면 아주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다 같이 죽고 말자”라고 대답했죠.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창피함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낯선 남자와 살아온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가정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누비며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담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묻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결혼하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지는 겁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선남선녀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것이 결혼생활입니다. 연애할 때는 행복한 감정이 죄성(이기심, 두려움 등)을 이기고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게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 인간은 그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이기적이 되고 상처를 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부가 서로의 욕구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아픈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사랑과

인정에 목마른 사람한테 자주 먹을 것만 주니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서로 소통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고, 남편은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 때문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영(사탄)과 싸워야 하는데 아군끼리 싸웁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의 무지와 무식 때문입니다. 단순무식한 남편과 복잡무식한 아내가 만나서 단순하고 유치한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부부싸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알아야 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되 정식으로 배워야 합니다. 행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인생은 반복에 의해 결정됩니다.

남편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삶의 진정한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돕는 배필인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십시오. 아내가 여러분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고, 그 사랑과 존경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와 하나가 되십시오.

부부갈등 원인

1. 우리의 죄성 때문에
2. 욕구 차이 이해 못해서
3. 소통하는 법을 몰라서
4. 사탄의 계략 때문에
5. 무지와 무식 때문에
6. 결혼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부부갈등 해결방법

1.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야 하고, 따라가기
2. 예수님을 배우되 정식으로 배우기
3.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4. 갈등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기
5.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자세 피하기
6. 배우자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기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세상의 모든 아내들에게

남편과 저는 20년 넘게 가정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부부에게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당장 지난해만 해도 우리 부부는 황혼이혼을 할 뻔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깊어져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곤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등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탓만 하지 말고 갈등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를 아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요. 갈등을 풀어나가는 연습과 과정을 통해 부부가 하나 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아내들이 실수하는 것이 분(憤)을 내고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급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그만하고 자자고 하는데 아내는 자면 어떡하냐면서 빨리 문제 해결하라고 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달라서 시간이 지나야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조금씩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맞춰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기보다는 남편이 무엇인가 해주는 배필이 되기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상하게 보살펴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욕구가 충돌하면서 부부 갈등이 생깁니다.

성경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엢 5:33)고 했습니다. 사랑할 만 하니까 사랑하고,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고 사랑하면 그 남편은 저절로 아내로부터 존

경을 받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저절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경이라는 것은 인정을 뜻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난 남편에게 “이것도 월급이라고 갖고 온거냐”며 타박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고 말했습니다(벧전 3:6).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바로 왕에게 헌납하려던 형편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왜 ‘주(my Lord)’라고 칭했을까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남편으로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내 여러분, 인생은 길입니다. 긴 인생 나와 평생을 같이할 남편이 남의 편이 되어 서로 돕고 할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아내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내편으로 만들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 어머니학교)

우리 교회 숨은 일꾼

문화선교사를 꿈꾼다

남양주 임찬웅 순장의 달란트와 비전



▲ 임찬웅 순장이 등산 및 여행에서 문화해설을 하고 있다.
▶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 매 순간 행복하다”는 임찬웅 순장.

우리 교회 숨은 일꾼들을 만났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 첫 주인공은 남양주 온누리교회 임찬웅 순장이다. 임 순장은 문화해설가로 활동하면서 남양주 온누리교회 등산 및 여행, 국내성지순례, 시니어 아카데미, 러빙핸즈 등을 섬기고 있다. 불철주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는 기독교와 한국 문화를 융합하는 ‘문화선교사’를 꿈꾸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매년 5월 5일 특별한 여행을 간다. 경기 북부지역 문화유산들을 둘러보는 ‘등산 및 여행’이다. 전도하고 싶었던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한국의 문화유산을 둘러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등산 및 여행에서는 두 가지 만찬을 즐길 수 있다. 하나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고즈넉한 고적을 보는 맛이고, 다른 만찬은 임찬웅 순장으로부터 듣는 문화해설이다. 문화해설이 등산 및 여행의 진짜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찬웅 순장의 문화해설은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부터 이어진다. 문화해설 경력만 25년인 베테랑의 실력이 어김없이 발휘된다.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지명에 관한 유래, 폭포, 강 등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 고인돌을 만들던 시대와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세조가 자신의 무덤에 돌을 쓰지 않고 석회를 사용한 이유 등을 듣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전도대상자들의 반응도 좋다. 그들이 알고 있던 교회 행사와 다르다는 게 그 이유다. 신선하고 색달라서 만족스러워한다. 하루 종일 성경과 예수님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여행과 문화해설이 곁들여지니 재미있다는 것이다. 몇몇 전도대상자들은 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고도 한다.

“기독교는 서양에서 온 종교라 우리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우

리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문화선교사로서의 사명

등산 및 여행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교회의 문턱을 낮춘 재미있고 효과적인 전도 프로그램으로 고민하던 것이 모태가 되었다.

“등산 및 여행은 구청에서 준비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2014년 순맞춤전도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다 등산 및 여행을 떠올렸어요. 여행만큼 전도대상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마음을 여는데 좋은 방법이 없잖아요. 등산 및 여행 첫 해부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등산 및 여행은 전도대상자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된다. 임찬웅 순장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다. 임 순장은 25년 동안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면서 기독교와 한국 문화가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 것이 늘 아쉽고 안타까웠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와 한국 문화를 융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문화선교사를 꿈꾸게 되었다.

“기독교 문화와 한국 문화가 서로를 배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말이죠. 우리 땅에 온 선교사님들은 한국의 문화를 알기 위해 상투를 틀고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문화는 낡은 것이 되었고 설 자리를 잃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임 순장은 젊어서부터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기독교 역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기독교 역사가 너무 궁금해서 총신대 역사학과에 입학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여행을 계획하고 인솔하는 일을 했어요. 25년 가까이 문화해설가로 살고 있고요. 문화해설을 하기 위해서 토속 문화, 신앙 서적, 불경도 읽었어요. 그러면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임 순장의 고민은 문화해설사라는 일이 교회와 기독교와 관련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었다. 과연 하나님이 임 순장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놓고 늘 기도했다.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찾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임 순장에게 주신 비전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임 순장에게 맡기신 일은 기독교와 한국 문화를 융합해서 전하는 일이었다.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나 주어졌다. 하나는 등산 및 여행과 국내성지순례에서 문화해설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한국 선교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강의를 하는 것이다. 임 순장보다 선교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많지만 선교사들이 활동한 당시 그 지역의 문화와 해설까지 곁들이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임 순장의 강의는 선교사와 선교의 역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강의를 한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왕십리루터교회, 영동교회 등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본업인 문화해설 여행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선교사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 기독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기획하고 있다.

“국내에도 기독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들이 정말 많은데 잘 모르더라고요. 기독교 유적이라고 하면 선교사 묘지 정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다가 아니예요. 기독교 유적지를 가더라도 연혁만 둘러보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풍성한 알거리와 소중한 역사가 숨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알리고 싶어요.”

크리스천들이 자주 방문하는 강화도 역시 기독교와 한국의 역사와 문화해설이 융합되면 더 풍성하고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다.

“강화도는 신미양요, 병인양요를 겪으면서 서양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곳이에요. 그런데도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교회가 있죠.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진짜 예수를 바로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선교사와 신앙의 선배들이 강화도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기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어요. 그 역사와 문화를 실제로 보고, 느껴보고, 만져보는 여행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문화해설 여행은 일반 문화해설 여행보다 책을 두세 배 더 많이 읽어야 하고, 자료를 더 많이 모아야 할 만큼 복잡하고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이다. 임찬웅 순장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임 순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문화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재능기부에 동참하세요”

임 순장의 성실함은 물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섬김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순장, 시니어 아카데미, 러빙핸즈를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역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그가 이렇게 많은 사역에 헌신한 것은 생계를 내어놓아야 하는 선택이기도 했다. 보통 문화해설 여행은 아침 일찍 출발해서 늦은 저녁에 돌아온다. 수요일 목양예배, 금요일 순예배를 섬기면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문화해설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

“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손해 보는 일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게 하시고, 전보다 일을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자녀들의 건강도, 부부사이도 더 좋아졌어요. 제가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없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임 순장은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 좋겠다는 소망도 이야기 했다.

“온누리교회에는 전문가들이 정말 많은데 늘 봉사자가 부족해요. 재능기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면 더 큰 재능을 부여주십니다. 지금 바로 재능기부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스리랑카 국민가수 한국에 간증하러 왔다

안산M센터에서 찰스 토마스 내한 공연 ‘칸둘라’

지난달 29일 스리랑카 국민가수가 한국에 간증하러 왔다. 주인공은 스리랑카 국민가수이자 강연가 찰스 토마스다. ‘칸둘라’를 주제로 막 오른 공연에는 200명이 넘는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참석했다. 찰스 토마스 형제가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공연은 함께 울고 웃으며 타국생활의 고단함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천국 잔치였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찰스 토마스 형제에 따르면 스리랑카 불교계에 비상이 쳐졌다고 한다. 스리랑카 젊은 청년들이 한국만 가면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좋은 뉴스가 또 있을까. 스리랑카 불교계가 지난해 부라부라 경기도 안산에 절을 세웠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경기도 안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스리랑카 청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기독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스리랑카 불교계가 위기감에 세운 절이 옛 안산M센터가 있던 건물에 들어섰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만큼 안산M센터가 스리랑카 청년들의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고 열매 또한 풍성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스리랑카 불교계를 긴장하게 만드는 일이 또 벌어졌다. 안산M센터가 스리랑카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교회들과 함께 ‘찰스 토마스’를 초청했기 때문이다. 찰스 토마스는 스리랑카 국민가수이자 유명 강연가이다. 스리랑카 젊은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인물이다.

찰스 토마스의 내한 소식이 전해지자 스리랑카 불교계의 방해 작전이 시작됐다. 온갖 수를 써서 기업의 후원을 포기하게 만들고, 국내에 있는 스리랑카 이주민들에게 절대 그 공연에 가서는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대사관에도



스리랑카 국민가수 찰스 토마스가 안산M센터에서 내한공연을 가졌다.

항의를 했다. 스리랑카 불교계의 거듭된 반대와 훼방에도 불구하고 찰스 토마스의 내한이 성사됐다. 찰스 토마스가 기업의 후원 없이 자비량으로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찰스 토마스 내한에 대해 옥신각신하던 스리랑카 이주민들도 공연에 참석했다. 찰스 토마스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잔뜩 기대하면서 말이다.

공연 당일 이른 시간부터 안산M센터가 북적였다. 찰스 토마스를 만날 생각에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일찌감치 안산M센터에 와 있었다. 한국생활 4년차 만질라 형제는 한국에 온지 7개월 된 로사한 형제와 함께 왔다. 두 사람은 “유튜브로만 보던 찰스 토마스를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눈물 한 방울 그리고 행복

찰스 토마스의 공연 주제 ‘칸둘라’는 스리랑카어로 ‘눈물 한 방울’이라는 뜻이다. 과연 스리랑카 이주민들은 한국에 와서 언제 눈물을

흘렸을까.

넵스 씨는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매일 저녁마다 울고 있다”고 했고, 이쌍카 씨는 “공항에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울었다”고 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기술이 발전해서 수시로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고도 했다. 밀락사 형제는 “스리랑카에 있을 때 보다 4~5배의 돈을 벌지만 그만큼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찰스 토마스는 이날 공연에서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인생의 공허함을 잘 알고 있었다. 누구보다 깊이 공감해줬다. 그러면서 눈물을 행복으로 바꾸는 방법도 전수했다. 이날 공연은 비기독교인을 위한 공연이었지만 찰스 토마스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변화된 삶에 대한 간증이 핵심이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중가수로

성공했고 제법 많은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삶에 공허함과 회의가 몰려오더라고요. 무엇을 해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한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공허함이 사라지고 가슴속에 사랑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에 참석한 200여 명의 스리랑카 이주민들은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인디그 형제는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면서 “이번 공연이 스리랑카인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했고, 별빛 형제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안산M센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날 칸둘라의 공연에 참석한 이주민 중에는 불교, 힌두교 신자도 있었다. 그러나 장벽은 없었다. 불편함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모두에게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역칼럼

인천에서 사역하고 있는 곽 전도사님이 안산M센터를 찾아오셨다. 스리랑카 NSB은행에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을 위문하기 위해 유명가수 찰스 토마스를 초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셨다. 한국 6개 도시에서 공연할 예정인데 안산에서는 온누리M센터에서 하고 싶다고 하셨다. 우리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런데 공연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국내에 있는 강성 스리랑카 불교도들이 스리랑카 NSB은행에 직접 전화를 해서 “왜 크리스천 가수가 한국에 와서 스리랑카 불교도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한다. NSB은행으로서서는 부담이 되어서 찰스 토마

스의 한국공연 후원을 철회했다. 그리고 스리랑카 불교도들은 안산 단원경찰서에도 항의 문서를 보내 찰스 토마스 초청 공연을 막으려고 했다.

그의 강연에는 늘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이야기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리랑카 불교도들이 공연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찰스 토마스 측에서 자비량으로 한국에 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마침 의정부 스리랑카 모임에서 자신들도 찰스 토마스의 국내 체류비용을 감당하겠다고 했다. 내한이 결정되자 찰스 토마스는 의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공연을 하고 싶다고 했고 또다시 안산M센터로 연락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토마스 형제는 찬양을 부르는 기독교 집회도 하지만, 불교도들을 대상으로도 집회를 한다. 스리랑카에서는 불교도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스리랑카 불교도들이 종교적,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서 찰스 토마스를 못 오게 하려고 했다. 몇몇 불교도들은 SNS를 이용해서 그 공연에 가지 말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그 외중에 필자와 사냥 목사는 스리랑카 대사관에 찾아가 스리랑카 대사와 서기관들을 공연에 초청했다. 그러면서 안산M센터를 소개했는데 이미 안산M센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공연 당일 2등 서기관이 참석했다.

한 친구는 혼자 왔다. 같은 회사에 15명의 스

리랑카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를 제외한 나머지 14명이 왜 그 공연에 가느냐고 심하게 비난을 했다고 했다. 여러 가지 방해가 힘들고 불편했지만 오히려 안산M센터가 더 많은 스리랑카인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더 많은 친구들이 안산M센터를 방문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더 많은 스리랑카인들이 복음의 빛을 보게 되었다. 중보기도로, 섬김으로 애써주신 스리랑카인 봉사자들과 중보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용국 목사
(화성M센터)

“불어권 선교 우리가 책임진다”

프랑스어예배, 복음의 불모지 불어권 아프리카와 유럽 선교의 교두보



▲ 아프리카 F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비전 선교사.



▲ 불어권 선교를 꿈꾸는 조우현, 김은유 부부.

불어권 아프리카를 ‘선교의 불모지’라고 일컫는다. 그만큼 선교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불어권은 프랑스어를 모국어 혹은 공용어, 제2의 언어로 쓰는 나라를 의미한다.

아프리카 54개국 중에서 24개국이 불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90%가 영어권 아프리카에 편중되어 있다. 불어권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영어권 아프리카(60%)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 중에서도 가톨릭 신자를 제외하면 개신교 인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불어권 아프리카는 당장 선교가 필요한 최전방 선교지이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작년 1월 온누리교회 프랑스어예배가 첫 선을 보였다.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와 유럽 선교가 비전이다. 프랑스어예배는 불어권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불어권 선교사들을 회복시키고, 불어권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불어권 아프리카 F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허드림, 박비전 선교사 부부는 온누리교회 프랑스어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회복을 경험했다.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제2의 선교를 시작했다.

“우리 부부는 프랑스에서 25년 동안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했어요. 후원금 한 푼 없었지만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파리에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유학생 300~4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했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다. 한국에 IMF가 터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부모들의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유학생들이 대거 한국으로 돌아갔다. 교회에 출석하던 유학생 중 50명만 남고 모두 떠났다. 위기는 계속됐다.

“남편이 영적으로 정말 힘들어했어요.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내려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안식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마침 온누리교회에 프랑스어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2015년이였다. 당시 허드림, 박비전 선교사 부부는 몸도 마음도 몹시 지쳐있었다. 힘겨워하던 그들에게 프랑스어예배는 생명수와 같았다. 일대일 제자양육과 와이미션도 그들에게 치유와 도전을 선물했다.

“프랑스어예배 최윤 집사님이 저를, 임훈 장로님이 남편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 주셨

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속이 뽕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선교에 대한 비전도 다시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일대일 제자양육이 선교의 비전을 재발견하게 했다면 와이미션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했다. 남편 허드림 선교사는 와이미션 과정에서 허드슨 테일러와 서서평 선교사에 관한 책을 읽고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됐다.

“그동안 유학생을 대상으로 목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교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한국에 오면서 선교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다시 선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의 비전을 회복한 허드림, 박비전 선교사 부부는 지난해 말부터 아프리카 F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학령기 아이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다. 그들 부부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다.

“영어권 아프리카에는 선교사들이 많은데 불어권 아프리카에는 선교사가 거의 없어요. 이슬람 사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가 정말 시급합니다. 선교에 비전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선교의 최전방 불어권 아프리카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불어권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

프랑스어예배를 드리면서 불어권 선교를 꿈꾸게 된 사람들도 있다. 조우현, 김은유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불어권 선교를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양재 2000선교 실행위원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임훈 장로님께서 프랑스어예배를 시작하는데 함께 섬겼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어요. 처음 시작하는 예배니까 조금만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불어권 선교를 비전으로 품게 된 것은 미션 디모데 여름캠프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다. 다른 선교지를 품고 있던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다.

“원래 둘 다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동남아시아, 아내는 북한선교를 품고 있었죠.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불어권 선교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프랑스 미션 디모데 여름캠프에서 은혜도 받았다. 현지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이다.

“가족이 함께 성도들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서 놀랐어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일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 아내 김은유 성도에게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청년부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프랑스어예배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불어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불어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어예배는 조우현 성도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프랑스어 성경공부’를 가장 좋아한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기 때문이다.

“작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비해 로마 병정들을 보냈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동안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따른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의 기도제목이 달라졌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그의 기도제목이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불어권 선교는 우리 부부가 원해서 하는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원하시는 선교가 바로 불어권 선교예요.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할 뿐이에요.”

미션 디모데란?

미션 디모데는 프랑스 개신교단 중 하나로서 개척파 교단이자 신학교육기관이다. 미션 디모데는 알콜 중독자, 약물 중독자, 노숙자 등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청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센터에서 시작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자 비전이다.

대표적인 사역은 청년사역이다. 미션 디모데의 청년사역은 3년 동안 진행되는 신학교육이자 신앙 훈련 과정이다. 일주일의 절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공부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실제적인 봉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직업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그 외에도 Jean Calvin 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직 성경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을 작곡하고 있다. 미션 디모데에서는 2015년부터 온누리교회 프랑스어예배에 독자를 파견하고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다.

프랑스어예배 안내

일시: 매주 주일 오후 2시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5월 선교세미나 개최

주제: 종교개혁과 장 칼뱅
내용: 장 칼뱅 - 삶과 인품(21일)
설교자 장 칼뱅(28일)
시간: 오후 4시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나눔장터를 아시나요?

저렴하게 좋은 물건 사고,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성도들이 나눔장터에서 나눔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물건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나눔장터를 찾는 성도들은 꼭 이렇게 말한다.

“마치 초대교회의 나눔 같아서 좋아요.”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에 가면 매주 주일 나눔장터가 열린다. 작은 나눔이 큰 사랑으로 번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눔장터는 누군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을 파는 가게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삶의 활력소이다. 누구든지 나눔장터에 가면 나누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한 번도 가지 않은 성도는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성도는 없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나눔장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나눔장터는 성도들이 기증한 옷, 신발, 모자, 가방 등을 저렴하게(최대 5천 원) 판매하는 곳이다. 판매수익금은 교도소, 탈북민,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부한다. 지난해 수익금은 1,519만원이다.

나눔장터에 가면 나와 가족 혹은 친구와 동료에게 꼭 맞는 옷이나 물건을 찾으려고 손이 분주해진다. 6년째 나눔장터 단골인 양준홍 성도(서대문공동체)의 양 손은 이번 주도 무겁다. 좋은 옷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는 기쁨을 머금은 미소는 답이다.

“나눔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옷이 가격에

비해 품질이 정말 좋아요. 저는 나눔장터에서 구입한 옷을 회사 직원들과 순원들에게 선물하고 있어요.”

양준홍 성도는 나눔장터에서 구입한 옷을 전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직원이 있었는데 나눔장터에서 산 옷을 선물했더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직원의 사이즈를 미리 물어보고 나눔장터에 좋은 옷이 나오면 사서 계속 가져다주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지금은 교회에 잘 다니고 있어요.”

양준홍 성도에게 나눔장터는 누군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을 파는 가게이다. 비단 그 회사 직

원만이 주인공이 아니다. 공동체 안개 순원에 게도 나눔장터에서 산 옷을 선물했다.

“안개 순원이 된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에게 사이즈를 물어서 나눔장터에 있는 좋은 옷을 사다 주었어요. 선물을 받은 순원이 정말 좋아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순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어요.”

양준홍 성도는 누군가에게 선물할 옷을 찾았을 때가 가장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나눔장터에서 제가 원하는 옷을 찾으면 마치 모래밭에서 금반지를 찾은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구입한 옷을 직원들과 순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기쁨이 배가 되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 아니겠어요?”

중국에서 온 잉애근 성도도 매주 주일 빠짐 없이 나눔장터에 들른다. 지지난주 주일(7일) 만난 그녀의 품에는 태어난 지 10개월 된 아기가 있었다. 아기 신발을 고르는 잉애근 성도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10년 만에 생긴 아גיע요. 어렵게 가진 아기인 만큼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물건은 나눔장터에 다 있어요. 가격은 저렴한데 품질이 정말 좋거든요. 유명브랜드 아기 신발이 1,000원 밖에 안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작은 나눔이 큰 사랑으로

양준홍, 잉애근 성도처럼 나눔장터를 찾는 성도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하다. 봉사자들도 기쁘기는 마찬가지다. 베테랑 봉사자 이규연 권사(83세)의 얼굴에도 늘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다. 나눔장터에 봉사하는 주일이면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진다고 했다.

“집에 있는 것보다 나눔장터에 봉사하러 오는 것이 훨씬 좋아요. 나눔장터에 와서 성도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찾고 기뻐하면 내 일처럼 좋더라고요. 물건을 사러오는 성도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겁고요.”

이 권사에게 나눔장터는 만민의 장이자 삶의 활력소다. 17년 동안 나눔장터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이다.

재작년부터 나눔장터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종천 성도(성북공동체)의 섬김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성도들을 대하는 말투와 표정에서 따뜻함이 묻어난다. 그녀는 10년 전 사고로 크게 다친 적이 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됐지만 무리하면 병원에 가야 한다. 그럼에도 그녀는 나눔장터 봉사를 쉬지 않는다. 나눔장터를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이다.

“알뜰하게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나눔장터의 매출이 오르면 뿌듯하고요.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작은 섬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섬길 수 있는 건강을 다시 허락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눔장터를 찾은 한 사람의 작은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다. 나눔과 기쁨이 풍성해지는 나눔장터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았다.

나눔장터는 1998년 2월 IMF 이후 온누리교회에서 금 모으기 운동, 재활용품 나눠 쓰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라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수익금 1,519만 원은 가장 필요한 8곳에 기부했다. 교도소와 소년원(525만원), 어려운 성도 병원비(210만원), 선교사 병원비(200만원), 노숙인 희망원룸(200만원), 선교사(159만원), 재한 외국인 난민(100만원), 탈북민 사역(100만 원), 장애인 사역(25만원)을 후원하는데 사용했다. 나눔장터의 사랑 나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성도들의 기증품과 봉사자들도 기다리고 있다.

문의: 010-8752-2222

<나눔장터 봉사 시간>

주일
1부: 8시 30분~10시 30분
2부: 10시 30분~13시 30분
3부: 13시 30분~16시 00분
수요일
10시 30분~14시 30분

<물건을 기증해주세요>

물품: 재사용이 가능한 옷, 가방, 모자, 신발, 가재
도구 등
기부함 위치: 나눔장터 오른쪽, 서빙고 주차장 입구
왼쪽

사역칼럼

나눔장터는 나눔을 통해 사회선교와 구제를 실현하는 곳이다. 성도님들이 기증한 물품(옷, 책, 가벼운 도구 등)을 정리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곳,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을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결국 되돌아가는 것이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의 장이다. 크게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판매 수익금

전액 사회선교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눔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 전달 아닐까.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꿈과 희망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된다. 나는 온누리교회에 나눔장터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다.

그동안 나눔장터에서 봉사하면서 힘겨울 때도 있었다. 지하의 좁은 공간과 환경 등은 개선되어야 할 숙제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인가

크신 사랑으로 나눔장터의 모든 봉사자들을 위로해 주심을 느낄 때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열정을 쏟으시는 봉사자 한 분 한 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어머니의 따스한 품 같은 권사님의 사랑은 나눔장터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즐겁게 해준다. 기증품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도 감동이다. 손수 다리미질을 해서 물건을 가져오는 성도님들의 정성에 큰 감동을 받을 때가 많다. 그렇게 모인 기

증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귀한 곳으로 흘러 보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인가.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야말로 참 보람이요 참 기쁨이라고 확신한다.



서선교 팀장
(강서공동체)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려는 가롯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마 26:21).

유다는 철렁 내려앉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요. “랍비여! 저는 아니겠지요?”(마 26:25).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가 말했다”(마 26:25).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빵을 한 조각 적셔서 유다에게 주실 때 유다가 빵을 받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해요(요 13:27). 많은 친구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고의로 사탄을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인간은 종종 진리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법이에요. 빛 되신 진리 앞에 자신의 정체가 흰히 드러났을 때 유다는 회개의 눈물을 선택하지 않고, 구역질 대로 구역질 자존심을 닦으며 사탄의 지배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뭐야. 지난번 베다니에서 향유를 마구 부어대던 마리아 앞에서 망신시키더니 오늘은 이 좋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나를 또 이 따위로 취급해? 어디 십자가 형틀 위에서 그럴 수 있나 보자!’ 분노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유다의 얼굴이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

나요?

사실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 심리적 불편함을 느낀 건 꽤 오래 전부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등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재물의 위험성과 허무함을 설교하셨어요. 그때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두에 두신 대상이 바로 사랑하는 제자 가롯 유다가 아니었을까요?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를 들 때마다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찢림은 있었겠지만 추호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생각이 없었어요. 돈의 달콤한 맛을 꿀을 수 없었던 거죠. 진리와 맞바꾼 그 강력한 유혹은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고 극도의 분노와 불안감을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 원한에 가득 찬 분노로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뿔어요.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막 14:44).

예수님은 아무리 일깨워도 듣지 않는 한 인간의 완악한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과 재물에 대한 지속적인 욕망으로 유다는 스승이자 형

돈에 눈이 먼 가롯 유다 ②

제나 다름없던 구세주를 팔아넘겼어요.

은돈 30은 어느 집 소가 다른 집의 종을 팔로 받아 죽였을 때 죽은 종의 몸값으로 지불하는 액수였어요(출 21:32).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콕 집어서 떠들어대던 예수님을 죽은 종의 몸값으로 팔아넘길 때 유다는 짜릿한 쾌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돈 앞에서 진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 이 시대에도 어렵지 않게 목격하곤 해요. 유다는 이렇게 돈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진리를 버리고 멸망해 버린 어리석은 자들의 대표예요.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 수많은 여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학자가 계산해 보니 3년 동안 예수님 일행의 식사비만 5천만 원 가까이 필요했을 거라고 해요. 돈을 팔은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단단히 한몫 챙겼고 확실한 재산증식의 방법으로 부동산도 구입했었어요.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받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해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행 1:18). 이 ‘피발’은 마태복음 27장 9절에 나오는 유다가 성전에 버린 은돈 30으로 대제사장들이 구입한 피발(자그마한 규모의 밭)과 다른 것으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한 재테크 차원의 농장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려고 했던 농장으로 달려가 목매달아 죽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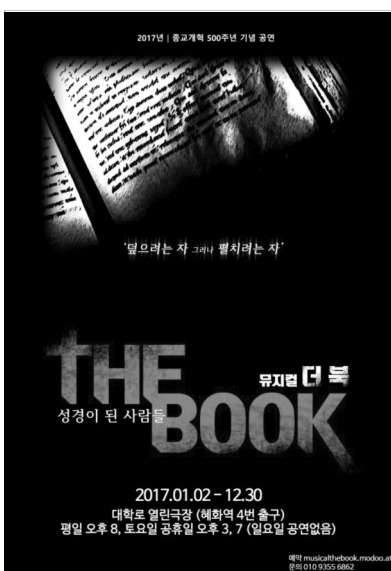
가롯 유다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두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에게서 발견되는 욕심과 죄악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적든 많은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어요. 보디발의 많은 재산을 맡았던 요셉도 그랬어요(창 39:4). 요셉이 한 집안을 뛰어넘어 이집트라는 한 나라까지 맡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정한 청지기였기 때문이에요. ‘청(聽)지기’는 주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해요. 가롯 유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참된 청지기였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마 26:24)이라고 평가 받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자리 잡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누군가 인생은 B-C-D라고 했어요. B(birth, 생)와 D(death, 죽음) 사이에 C를 채워 넣어가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C(Christ, 그리스도)로 채울 것인지, C(cash, 돈)로 채울 것인지 여러분의 C(choice, 선택)가 궁금하네요.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불만한 공연_뮤지컬 ‘The Book’

걸어다니는 성경 ‘롤라드’를 아시나요



뮤지컬 ‘The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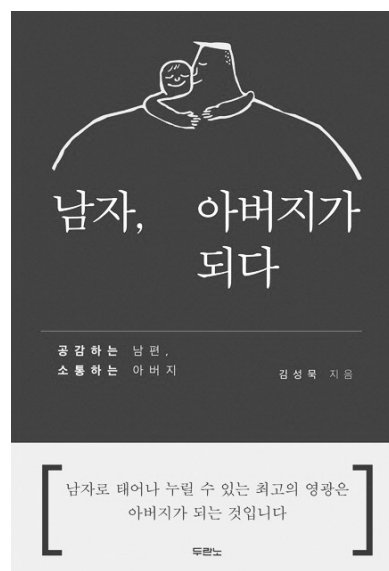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15세기 초 가톨릭은 타락한 상태였다. 부정부패와 면죄부 등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가톨릭의 그릇된 가르침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롤라드’라고 불렀다. ‘중얼거리는 자’, ‘위선자’, ‘가라지’라는 뜻이다.

롤라드들은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위클리프는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종교개혁자이다. 롤라드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급하고, 말씀을 영국 전역에 선포하는 일들이 확대됐다. 롤라드들은 평범한 서민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다. 롤라드들은 성경을 외우고 다녔다. 걸어 다니는 성경이었다.

뮤지컬 ‘The Book(더 북)’은 롤라드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평범한 서민 롤라드 아이린과 그의 아버지 토마스, 그들을 감시하는 이단감찰사제 등이 출연한다. 롤라드들의 활동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그려진다. 뮤지컬 ‘The Book(더 북)’은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열린극장은 해화역 4번 출구로 나오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평일 오후 8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3시와 7시에 막 오른다. 주일에는 뮤지컬 공연 없이 오후 6시에 특별복음집회 ‘그 나무 아래’가 진행된다. 관람료는 1월 1만 원으로 시작해 매월 2,000원씩 오른다. 12월에는 32,000원이다. 뒤로 갈수록 관객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두란노 신간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은 당신에게



《남자, 아버지가 되다》
김성묵 저 | 두란노 | 12,000원

“당신이 가장이라면 현재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애원처럼 달려와 반갑게 맞아주는 경우도 있고, 본체만체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다. 돈만 벌어드주는 기계처럼 느끼는 가장들도 있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저자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20년 동안 연구한 전문가이다.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강의를 다니면서 여러 가정들과 상담도 했다. 가장들과 상담하며 공통적으로 질문했다.

“나는 열심히 살아 왔는데 왜 자녀들이 멀리하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는 왜 여전히 외로워하니까?”

이 책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아무도 예비아버지들에게 아버지의 역할과 사명을 알려주지 않는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교과서

도 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남편의 역할과 아버지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준다.

“부부관계가 회복된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서도 환경이 나아져서도 아닙니다. 서로 육구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는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영적인 제사장 역할도 해야 한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누구보다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한다.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관객 9만 돌파

CGNTV 국내외에서 특별상영회 개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이하 서서평)’가 누적관객 9만 명을 돌파했다. 6월 초순이면 10만 관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개봉한 서서평은 경쟁한 상업영화 속에서도 좌석점유율 21%대를 꾸준히 유지하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체 박스오피스 11위(5월 17일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서서평 선교사가 보여준 감동적인 삶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서서평의 흥행은 개신교 다큐영화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고 있다. ‘회복’ (15만 5281명), ‘소명’ (9만 7529명)에 이어 역대 흥행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조만간 갱신될 것이 유력하다. 역대 국내 다양성 영화 부문에서도 54위를 기록하고 있다.

CGNTV는 영화 서서평이 한국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눈다는 취지에서 특별상영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은퇴목회자 부부, 안식년선교사 부부, 홀사

모를 위한 특별상영회를 시작으로 농어촌 미자립교회, 예수자랑사모선교회, 제주여전도연합회, 제주교회 여성연합회, 장애인, MK, 소망교도소, 논산 육군훈련소 등 각계각층에 작은 예수로 살다 간 서서평 선교사를 소개할 예정이다. 27일에는 MK네스트 대표 최용 목사 and MK 100명이 참석하는 특별상영회가 예정되어 있다. 오는 7월에는 독일에서 ‘루터와 서서평’이라는 주제로 특별상영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특별집회 ‘무슬림을 우리 품에’

5월 23일 ~ 6월 20일 Acts29 비전빌리지 시안홀

Acts29 비전빌리지가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특별집회 ‘무슬림을 우리 품에’를 개최한다.

특별집회는 Acts29 비전빌리지(경기도 용인시) 시안홀에서 매주 화요일(현충일 제외) 오전 10시 30

분에 진행된다. 이번 특별집회는 라마단 기간 동안 전 세계 16억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중보기도 하는 집회다.

김마가 선교사(5월 23일), 김요셉

선교사(5월 30일), 이경원 선교사(6월 13일), 김홍주 목사(6월 20일)가 메시지를 전한다. Acts29 비전빌리지로 가는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서빙고 오전 9시, 양재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한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는 오후 3시 출발한다.

문의: 031-331-8211
010-4910-1401

일.하.세. 아카데미 GUM예배

6월 3일 오전 9시 30분 남양주 테라스 카페

‘일.하.세.(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아카데미’ 6월 GUM(Get Up in the Marketplace)예배는 오는 6월 3일 오전 9시 30분 남양주 테라스 카페에서 드린다.

GUM예배는 미취업, 고용불안, 실업, 조기은퇴 등 사회, 경제 구조적 변화, 일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예배이다. GUM예배를 드리고 나서 ‘영화 속 일터영성’을 주제로 특강이 이어진다. 서명수 장로가 ‘일터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를 주제로 강의한다.

강의는 서 장로가 신명기를 요약·설명하고 말씀과 관련된 영화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개될 영화는 ‘내일을 위한 시간’(Two days, One Night, 벨기에, 2014), ‘히든 피겨’(Hidden Figures, 미국, 2016), ‘인턴’(The Intern, 미국, 2015)이다. GUM예배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8시 서빙고 신관 403호에서 드리고 있다.

문의: 010-6321-9522

제5회 온누리열방탁구대회 개최

6월 6일 오전 9시 온누리 기독교문화전시관

양재 2000선교 스포츠선교팀이 6월 6일 오전 9시 서빙고 근린공원에 위치한 온누리 기독교문화전시관에서 ‘제5회 온누리열방탁구대회’를 개최한다. 온누리교회 성도와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열방탁구대회에서는 오전 수

준별 개인 단식, 오후 공동체별 4인 단체전이 진행된다.

회비는 개인 1만 원, 단체 4만 원. 회비 수익금은 전액 이주민 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탁구 레슨과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문의: 고길범 팀장 010-3772-3686

남양주, 바비큐 파티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지난 11일 아세아연합신학교(경기도 양평 소재) 외국인 신학생들을 초청해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안광국 담임목사와 20여 명의 성도들은 아세아연합신학교 학생회관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외국인 신학생들에게 먹이면서 교제를 나눴다. 인도, 네팔 등지에서 온 신학생 70명이 참석했다.

허주 교수는 “외국인 학생들이 끼니를 자주 거르는데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섬김과 교제가 큰 격려가 되었다”고 말했다. 안광국 목사는 “앞으로 지역 내 신학교와 학생들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밝혔다.

아트비전 정기전 6월 4일까지

온누리 미술인 선교회 아트비전의 5월 정기전이 한창이다. 5월 정기전은 ‘GENESIS-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주제로 6월 4일까지 서빙고 신관 1층 카페에서 진행된다. 아트비전 소속 작가들이 창세기를 묵상하고 표현한 다양한 장르의 그림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10-4876-2354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

날짜: 5월 28일(주일) / 시간: 오후 5시~7시(식사제공)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2층 시온홀(B2)

대상자: 3월 12일~5월 13일까지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가정사역 권영석	이현아	광명 조윤희	이광미	이수옥	이길엽	이규범	소윤미
박 한	조은영	김포	이미라	이한유	신용산	이선자	신상국
박성환	관악금천	김중태	이정미	정다은	곽재연	이소영	신태식
정지윤	공현정	신선호	한누리	차영자	류이선	장광운	신후남
강서	김영수	마포	서빙고	서빙고	박종열	최정은	유수영
김소연	김영식	김빛나	김정경	성동광진	유철영	최병룡	이경원
진우식	박보영	동대문중앙	김평빈	김정태	이진용	한강	이민희
최선옥	신태웅	고영훈	박복자	김지은	양천	유연준	이영문
최연우	오은정	이정자	신명옥	김지은	한강	김민희	이윤신
강춘	이창우	동작	이상옥	문영란	이선영	조재현	정승규
강정희	이한행	김성미	북누리	박연수	조재현	황영철	김혜원
이은경	이현주	김영숙	최민희	임영희	중종로	김상률	홍중희
고양은평	전경진	김용국	서대문	황영철	김상률	김수훈	S브릿지
소재호	정진영	김현규	김성옥	성북	송기순	왕규장	김효성
이향경	진수정	박진희	김현규	송기순	송기순	왕규장	김효성
	홍희남	유시용	위세나	윤혜원			

농어촌목회자 위한 힐링캠프 개최

경남지역 43개 교회 목사·사모 83명 참석

지난 5일 서빙고 농어촌선교회가 경남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 수양관에서 경남지역 목회자를 위한 ‘힐링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힐링캠프는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식사와 교제를 하면서 쉼을 누리는 안식형 프로그램이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힐링캠프에는 경남지역 43개 교회 83명의 목회자와 사모가 참석했다.

이선영 전도사(청현교회)는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서 지치고 곤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고, 구자엽 팀장(서빙고 농어촌선교회)은 “온누리교회 성도들님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에 농어촌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도쿄 기·도·제·목

■5월 22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 교회가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5월 23일(화) 일본 실행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5월 24일(수) 협력하는 모든 교회들과 목사들이 복음으로 연합되기를
■5월 25일(목) 이재훈 목사님이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5월 26일(금) 스태프들이 보혈을 의지해 준비하고 섬길 수 있도록
■5월 27일(토) 러브소나타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기를
■5월 28일(주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많은 결산자들이 나오도록

■ 유아세례 간증



/ 아이: 김하울, 부: 김민석, 모: 김민선

아이와 부모가 함께 거듭나길

아이가 돌이 될 무렵 유아세례를 받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 부부의 나태한 신앙생활 탓에 고민만 했다. 육아와 둘째 임신, 바쁜 회사 일 등이 겹쳐 유아세례를 잊기도 했다. 부모가 기도도 안하고 있는데 유아세례를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단정하고 판정하기도 했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라고 여기는 우를 범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하신 성례마저 마음대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게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유아세례를 받기로 결단했다.

유아세례를 준비하면서 아이와 가정을 돌이켜 보았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깨달았다. 지금은 삶과 사랑의 의미를 되짚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한다. 아이를 갖지 않으려 했던 우리 부부는 신유에 멘토님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하셨다. 그 과정을 보면서 지으심의 섭리에 감탄했다.

아이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

러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도 보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뜻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셨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우리를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단련시켜 주신 것 같다.

“벧속의 아이는 축복의 통로요, 내가 내 자녀임을 증명하여 말기는 생명이니 두려워 말라. 너희 가정을 굳건히 다져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한없이 사랑해 주셔서 인생과 신앙생활을 재정립시켜 주셨다. 유아세례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도 거듭나는 세례가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과 축복을 아이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지도할 것이다. 아이가 바른 신앙의 길을 찾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기도할 것이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거듭날 것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하울이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소망한다. 아이가 어떤 자리에서든 섬김의 자세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한다. 세상의 것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한다. 아멘.

■ 대전 순장 재교육을 마치고



/ 배길환 성도(대전 중서공동체)

아름답고 창의적인 순 만들기

순장으로 섬기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 순예배의 전반적인 형식이 순마다 일치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순장과 성도들이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들어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거나 가정에서 드리는 순예배를 외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사람 중심의 형식적인 순모임을 만들기도 한다. 순의 영성이 저하되는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순예배 참석률이 떨어지게 된다.

이번 순장 재교육은 공동체와 순에서 순장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최도성 장로님이 오랜 세월 리더십으로 섬기면서 경험한 영적 체험을 듣고 나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최도성 장로님은 ‘일터와 교회’를 주제로 교회에서 훈련받은 대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순장의 영성임을 강조하셨다.

한건수 집사님의 강의를 듣고 순모임에서 순장의 태도와 실제적인 순예배 인도 방법을 배웠다. 순은 신뢰가 우선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순장은 기도로 능력을 쌓고, 그 능력을 토대로 일관성 있게 순원들을 대해야 한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순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경청해주고 인정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과 순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다. 순장과 순원이 하나 되어 이루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박태영 목사님은 순의 정의와 순예배 인도법 강의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순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해주셨다. 순예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정리해 주셨고, 순장과 부순장의 자격과 역할, 순 배정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공동체에 전반적인 필요사항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셨다. 또한 순원들이 큐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랑을 나누며, 온누리교회가 Acts 29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셨다.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하여 순장을 비롯한 모든 리더십이 함께 모여 강의를 듣고 토의한 것이 감사하다. 일터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아름답고 창의적인 순을 만들어 가는 순장이 되고 싶다.

■ 서초D공동체 आयु회를 다녀와서



/ 오사랑 성도(서초D공동체)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

서초D공동체 구성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다. 젊은 부부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를 양성하는 곳이 서초D공동체다. 서초D공동체가 지난 9월 소중한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다. 팀비전센터에서 개최한 ‘한마음 명랑운동회’가 그것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하는 추억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며칠 동안 서울에 발령된 미세먼지 때문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었는데 녹음이 우거진 팀비전센터에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설렘이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1-3).

이끼진 목사님의 설교로 공동체 आयु회의 포문을 열었다.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진심으로 교제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였다.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받는 기쁨을 느낄 때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 깊이 와 닿았다. 공

동체는 하나님의 개념이며, 천국의 특징이라는故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도 떠올랐다.

아와 바비큐 파티와 방장님과 장로님께서 준비해주신 커피, 과일, 스낵 등의 간식은 정말 최고였다. 세심한 준비에 마음까지 포근해졌다. 이날 서초D공동체 지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홀라후프 통과하기, 단체 줄다리기, 경보계주 릴레이 등 10개 프로그램에 모든 지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기가 넘쳤다. 어린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어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무엇보다 새로 공동체에 소속된 가정들이 즐겁게 참여해서 기뻐했다. 우리 팀이 이길 때도, 상대팀이 이길 때도 열심히 응원했다. 어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안전하고 신나는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공동체 리더십들에게 감사했다. 이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모이기를 힘쓰고, 실수를 용납하고, 내 삶의 은혜를 나누고, 상처를 치유 받고, 즐거운 기억을 공유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는다. 서초D공동체가 더욱 연합하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 온비아 갈라디아서 과정 수료 간증



/ 문상권 성도(송파공동체)

내가 사는 방법

나는 지난해 10월 5일 대장암 선고를 받았다. 내 나이 고작 42살이었다. 아직 젊은 나이였고 슬하에 어린 자녀들도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살려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은 잘 끝났다.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은혜도 받았다. 지금은 치료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장암 발병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졌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온비아 갈라디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이 시기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배우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주장했다.

마틴 루터는 바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과도 같았던 가톨릭의 면죄부에 맞섰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다. 마틴 루터는 또 다른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온누리교회의 표어는 ‘돌이키면 살아 나리라’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잘못된 신앙생활, 생활습관, 식습관과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돌이키는 것뿐이다.

나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삶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공부함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은 것이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나를 정죄하던 마음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어 감사하다. 내가 만든 ‘다른 복음’으로 스스로를 정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의 길’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어린 아이가 ‘엄마’라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천 번은 들어야 한다.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천 번 이상 듣고 마음에 새기길 소망한다. 내 삶에서 말씀이 행위로 드러나고 모든 영역에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신앙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다



박대호 장로
(서빙고 차세대 유년
1,2,3부 담당)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매우 많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교회에 위임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교회보다 가정의 더 많은데도 말이다. 성경은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키고... 행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신명기 6:2,3,7).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을 전수하는 일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최근 온누리교회 차세대사역본부가 실시한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러한 차원에서 전향적인 시도이다. 부모가 주체가 되어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성경적인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너무나도 기뻐다.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매순간 자녀들과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비롯해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속적 가치관,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 및 취업, 결혼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모들이 명확한 성경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매순간 자녀들과 소통한다면 자녀들은 더 나은 하나님의 세대로 자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한다.

첫째,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 위한 노력을 미루지 않게 된다. 성경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을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자녀들도 따라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게 된다. 둘째,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 부모자녀 관계가 좋아진다. 동일한 성경 말씀을 매일 함께 나

누기 때문에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대화의 수준도 점차 깊어지게 될 것이다. 자녀 역시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므로 갈등을 쌓아 놓거나 해결책을 찾느라 불안해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셋째,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지불식간에 더 좋아지게 된다. 부모와 자녀의 소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므로 주어지는 축복이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희망사항이지만 인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헌신하는 부모에게 베풀어지는 축복이다. 넷째,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매일 성경 말씀을 쌓아 가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좇아 생활하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삶의 기초로 삼고, 어른이 돼서도 절대 잃지 않을 것이다.

이외에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성경말씀을 가지고 소통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되새겨볼 겨를이 없었다.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교회의 몫이라고 여겼다. 결국 다음세대에 하나님을 전수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큰 관건이자 이슈라고 말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음세대가 문제임을 내포하고 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듯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키운 탓이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당부에 순종해야 할 때다. 실제로 많은 다음세대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부모들이 먼저 다가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진실에 부모님들이 용기를 내어보자. 자녀들에게 다가가 보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동행해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권사칼럼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한현숙 권사
(이촌공동체)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이니라”(요 15:5).

식물을 보면 열매의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봤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런데 어려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간 기억이 없다. 내가 7살 때 살림도 거의 없이 해화동에서 답십리로 이사를 갔다. 그때부터 나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서 친구도 없고 외로웠다.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려 쫓아가 봤더니 교회였다.

교회바닥이 마루라 신발주머니가 필요했다. 집에 돌아와 옷감을 찾아 여러 개의 신발주머니를 만들었다. 신발주머니에 현금동전을 한 개씩 넣어 벽에 걸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교회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신발주머니가 여러 개였던 이유는 일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어린 아이의 서툰 바느질이었기 때문에 영성하기 짝이 없었다.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해 신발을 넣을 때마다 신발주머니가 풀어졌다. 그래도 나는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다. 여름성경학교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여름성경학교가 끝날 때는

상장들과 푸짐한 상품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때 성경학교에서 만난 친구가 남편을 소개시켜주었다. 남편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동의해주고 본인도 차츰 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편이 변화되는 시간은 짧은 행복이면서도 긴 고난이었다.

둘째 아들이 장애가 있었다. 남편은 아들의 장애를 인정하지 못했다. 남편 스스로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했다. 화요성령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나는 정말 힘들 때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우리 가정에 쓰나미 같았던 힘든 상황이 지나갔다. 그 시간은 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다. 아들은 잘 성장했다. 기도한 대로 당당한 사회인이 되었다. 둘째 아들의 장애가 고난인 것 같았는데 축복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부를 섬기고 있다. 사랑부 교사로 함께 섬기던 자매가 큰며느리가 되었다. 우리 가정은 사랑부에 속한 아름다운 가족이다. 내게 사랑부는 섬긴다기보다 은혜 받는 공동체다. 각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내가 모종일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매일 기적 같은 삶으로 행복과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한다.

청년기고



오세윤 사역MC
(요셉공동체)

추운 겨울이었다. 어느 때와 같이 도서관을 향해 터벅 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내 눈을 유난히 사로잡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는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다.

활하는 나의 모습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처럼 느껴졌다.

도서관에 도착해서 5층 테라스로 나갔다. 밖을 내다보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에는 앙상한 나무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그 나무 가지 위로 새하얀 눈이 덮여 있었다. 그 하얀 눈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 풍경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겨울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도 저런 모습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시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를 잘 지켜야 한다. 빛 되신 주님께서 앙상한 나무 같은 인생도 특별한 아름다움이 되도록 비취주시기 때문이다. 겨울과 같은 상황에서도 존재 자체가 귀하고 특별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는 때때로 겨울을 살아간다. 청년이기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과 냉혹한 순간들도 찾아온다. 하지만 겨울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지나간다. 하나님 앞에 귀한 아름다움이 되는 순간이 온다.

요셉공동체는 온누리교회 청년공동체 중에서 유일하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비전을 품고 함께

예배드린다. 그리고 주일에는 각자 사역하는 자리를 지키며 섬기고 있다. 청년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충분히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청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섬기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다. 웅기종기 모여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특별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다. 청년의 때도 지나간다. 언제까지나 청년공동체에 머무를 수 없다. 우리의 젊은 날에 힘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모든 청년들이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바뀌시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특별한 아름다움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배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 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 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 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 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 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신관 4층 누리홀

인천 온누리교회 전일간사 모집

모집: 예배, 음향 및 행정담당 간사 1명(남)
문의: 신상빈 간사(032-437-9686)

온누리선교재단 직원채용 공고

모집: 서빙고 커피숍 직원, 서빙고 한식당
조리원, 양재 기관시설관리 직원, 양
재 한식당 조리원, 양지 기관 직원(1
년 기간계약직)

자격: 세례교인, 경력부관(경력자 우대)

문의: 총무팀(02-3215-3102)

사랑의줄잇기 보조원 모집

업무: 소꿉말에 사진 올리기
시간: 오후 1시~5시(화,금 시간조정 가능)
급여: 추후 협의
문의: 이희주 권사(010-2209-6948)

66회 성령수련회 참가자 모집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시간: 6월 17일~6월 18일(1박2일)

문의: 서빙고(황보은선 권사 010-7120-
5221)

양재(김현옥 집사 010-8965-3610)

어린이일대일 아버지양육자반 모집

일정: 6/11, 18일(주일) 2주

시간: 서빙고 신관 101호 8:20~10:00

조건: 초등학생자녀가 있는 아버지(기본
원칙) + 양육자반 수료 이상

문의: 최지완 간사 02)3215-3220

OEM한국어교실 봉사자(교사)모집

날짜: 매 주 토요일 (계절방학있음)
서류: 간단한 자기소개와 신앙간증문
자격: 온누리등록교인, 일대일 수료자
문의: korean@onnurienglish.org

두란노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일시: 6월 10일~7월 8일(매 주 토 오후3시)

장소: 온누리교회 도곡캠퍼스

문의: 이기훈(010-4215-5837)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 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 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 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 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 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 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 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 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 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

임 살롱기도회

일시: 매 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 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양재 분관 지하 3층 JDS홀

일산 일산호수요양병원 4층

종교개혁과 장 칼뱅 세미나

일시: 5월 28일까지 매 주 주일

16:00~17:20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강의동 304호

강사: 제라르 티네베 목사님

*한국어 통역서비스 제공

제5회 온누리 열방 탁구대회

일시: 6월 6일(화),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서빙고 근린공원 전시장

대상: 온누리 등록교인 및 지역 주민

문의: 고갈범 팀장(010-3772-3686)

*게시판 광고마감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7:00/2부 오전9:00/3부 오전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4:00(대청예배)/6부 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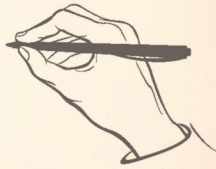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손글씨 이벤트



나만의 손글씨로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다짐해주세요
당신의 손길이 섬김의 씨앗이 되어 열매 맺길 응원합니다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참여방법

- STEP 01** 손글씨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를 작성해 주세요.
- STEP 02**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 해주세요.
해시태그 예시: #서서평 #성공이 아니라 섬김
SNS & 블로그 :     
- STEP 03** 게시물 URL을 복사해주세요.
- STEP 04** 아래의 QR코드 링크로 제출해주세요.



응모방법

- 응모기간** 5. 13 (토) ~ 5. 25 (목)
- 당선작 발표** 5. 26 (금)
- 참여페이지** 

<https://goo.gl/b0MwJd>

*당선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당선 선물

나눔상

섬김 후원금
200,000원

섬김 후원금 20만원
(5명)

응원상



서서평 텀블러
(10명)

* 섬김 후원금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상영관 및 단체 대관 관람 안내는
<https://shepping.modoo.a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 대관 관람은 상시 가능하오니
CGNTV(02-3275-9306) 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인 및 주변 단체, 교회에 많은 추천
바랍니다.

다큐영화 <서서평>의 감사

9만명

누적관객수
(5/17 영화진흥위원회 기준)

1위

4주연속
다양성 영화

11위

전체 박스오피스
(5/17 영화진흥위원회 기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서평 선교사가 남긴 메시지와 은혜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